

##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 통과

한나라 최루탄 이수라장속 14개 이행법안도 처리... 민주 "향후 모든 국회일정 거부"



민주당 김선동 의원(순천)이 22일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여당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최루탄을 터뜨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이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등 야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7분 만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강행 처리했으나 민주당이 강력 반발, 향후 국회 일정을 거부하기로 함에 따라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한미 FTA 비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51, 반대 7, 기권 12명으로 가결시켰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의장석 주위에서 회의 진행에 강력히 반발하며 저지하려 했으나 국회 경위들이 의장석으로 통하는 모든 길을 막아 역부족이었다. 한나라당은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14개 한미 FTA 이행법안도 처리했다.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2007년 6월 30일 양국 간 공식 서명 이후 4년 4개월 만이며, 재협상을 거쳐 지난 6월 3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5개월 만이다.

여당은 전날 지도부 회의를 거쳐 '22일 표결처리' 방침을 확정했으며, 이날 오전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간의 최종 협상이 결렬되자 전격적으로 비준안 단독처리를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상정에 앞서 박희태 국회의장은 오후 3시 본회의를 소집한 뒤 오후 4시까지 비준안의 상임위 심사를 마칠 것을 여야에 요청했으며 사회권을 정의화 부의장에게 넘겼다. 그는 또 오후 3시 5분을 기해 질서 유지권을 발동했으며 국회 본청 주변에는 경찰력이 동원돼 야당 보좌진들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오후 3시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에 들어갔다.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표도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이날 본회의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며 언론 출입을 원천봉쇄했지만, 개의 직후 야당 당직자들과 기자들이 본회의장 취재석 등으로 진입해 날치기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냈다. 비준안 통과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강력 저지에 나서면서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특히 민노당 김선동 의원이 본회의장 내 의원 발언대에서 최루탄을 터뜨렸다.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이 터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 의원은 한때 경위들에 의해 격리조치됐다. 이날 한나라당의 비준안 강행 처리에 따라 민주당은 향후 모든 국회 일정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박희태 국회의장과 국회 본회의의 사퇴를 촉구하는 동시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항의농성에 돌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대책도 없이... 전남 농축산 직격탄

국회가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전격 통과시키면서 전남지역 농·축산 부문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비준안 통과로 한·미 FTA 발효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전남도의 농업·농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이 턱없이 미흡한 탓이다. 농민들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도내 농업소득 감소액이 연평균 939억원에 이르면서 발효 15년이 되면 소득 감소 규모가 1조 408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피해 규모로는 전국 소득 감소액(10조 4700억원)의 14%에 달한다. 특히 소고기를 비롯, 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분야의 경우 연간 생산 감소액이 700억(발효 후 15년간 피해액 1조 5000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

농업소득 감소 年1000억  
농민단체 규탄 기자회견  
는 등 개방 피해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과수 부문도 연간 143억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채소·특용작물(73억), 곡물(23억) 등도 FTA 피해를 비껴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난 8월 농업분야 FTA 대책예산으로 22조 1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농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에는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전남도가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위기를 맞고 있는 농업·농촌 경쟁력 확보에 절실하다며 매년 발굴해 건의 해온 정책 과제들 중 반영된 것도 손에 꼽을 정도다. 올해만 보더라도 ▲

FTA로 인한 피해보전 및 소득안정 지원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 기반 확충 ▲농촌 정주·교육·복지여건 개선 등 4개 분야 59개 과제를 건의했지만 고작 8개만 반영됐을 뿐이다.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자체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도 쉽지 않다. 박준영 전남지사가 최근 국회의 FTA 비준안 처리를 앞두고 피해 보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농민단체들의 반발도 시작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이날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한나라당 앞에서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 통과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비준안 통과를 비난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입찰잠음 끊어라

광주시 내년 대형사업 잇단 발주  
강시장 계약·인사제도 개선 지시

광주시가 발주한 각종 주요사업에 대한 입찰 불공정 의혹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도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들이 발주될 계획이어서 공사·용역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및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22일 각종 공무원 비리와 입찰 의혹 등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이 입찰을 비롯한 시정개혁을 촉구하는 시위에 나서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앞서 올해 광주시가 발주했던 총인사설 사업은 입찰 비리 의혹이 일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CC(폐쇄회로)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불공정 시비가 일면서 법원이 (주)KT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 진보연대, 광주·전남

■광주시 내년 대형 발주사업 (단위:억)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U대회 다목적 체육관 건립	1132억	2012~2014
제2컨벤션센터	700억	2012~2014
U대회 수영장 건립	687억	2012~2014
U대회 국민생활관 증축	270억	2011~2013
남구 다목적 체육관	165억	2012~2013

광주시에 따르면 시가 내년에 발주할 주요 사업은 ▲U대회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비 1132억 8300만원) ▲수영장 건립(687억 1300만원) ▲남구 다목적 체육관 건립(165억원) ▲국민생활관 증축(270억원) 등 U대회 관련사업과 ▲제2컨벤션센터 건립(700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U대회 사업의 대부분은 공사기간 등의 이유로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예산 절감과 투명한 입찰을 위해 턴키 방식이 아닌 최저입찰가 경쟁방식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

역상단체연합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23일 광주시의회에서 인사·입찰 등 시정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청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공무원들의 잇따른 비리 행위와 관련해 "시장으로서 부끄럽고 시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과했다. 강 시장은 또 "회계분야 공직자는 법규에 충실하고 공정하게 제도를 운용해달라"고 당부하고 "행정부시장 책임 아래 채신적 차원에서 계약·회계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우암학원 창학61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광신대학교  
프레이즈 페스티벌  
가스펠 찬양대회 3rd.  
예 선 : 2011년 12월 3일(토) 오후 1시  
2011년 12월 10일(토) 오후 2시 본교 온누리 3층 대예배실  
참가신청 : 2011. 11. 7(월) ~ 25(금) 참가문의 : 062)605-1130  
포지션별 내용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조  
입학 문의 : www.kwangshin.ac.kr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대한민국 생활금융  
내일이 걱정된다면 돈을 일하게 하세요  
에버리치 우체국예금은 내일을 행복하게 합니다

EVER RICH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전남지방우정청 . 우체국